사심가득-김대년

시간의 토막들을 그림과 글로 남기고 싶은 소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 탄현면 생각

탄현면 생각

내가 사는 곳은 탄현면(炭縣面)입니다.

수도권에서는 흔치 않은 면(面)지역이지요. 흔히 일산의 탄현동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전혀 다른 곳입니다.

시골이지만 주변에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문화예술마을, 경기영어마을, 파주프리미엄아울렛, 축구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가 있고, 최근 이 일대가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분단의 상흔이 남아있는 접경지역이기도 합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요충지여서 역사적으로 잦은 전쟁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아픔은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집 앞 보현산 입구에 '지뢰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있었고, 지금도 곳곳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보다 군용 지프차와 트럭을 더 자주 마주치는 날도 빈번합니다. 하루 속히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 집 마당에서 빤히 건너다 보이는 북녘 땅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종식시킴으로써 한민족이 하나되어 번영으로 나아가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